

---

#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ODA 지원 방안\*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Enhancing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through Social Economy Approaches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Young-Chool Choi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present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by ultimately contributing to job creation and income increase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 use of social economy approaches utilizing South Korea's intellectual property.

**(Design/methodology/approach)** To achieve this,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was applied to six exper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intellectual property, social economy and ODA. And sensitivity analysis was additionally performed. Through this, the priorities of projects that ca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ODA were analyzed.

**(Finding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first, that intellectual property and social economy are suitable for developing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levels; second, as income levels increase, aid in the technology sector should be prioritized; and third, to establish a soci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pport for labor costs at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This suggests that when providing aid to developing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projects that are suitable for the income leve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country.

---

**주제어:** 지식재산, 사회적 경제, ODA 효과성, AHP, 원조

**Keywords:** Intellectual Property, Social Economy, ODA Effectiveness, AHP, Assistance

---

---

\* 이 논문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22S1A5C2A03092455).

\*\* ycchoi@cbu.ac.kr

Copyright © 2024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ty cited.

## I. 서론

현대 경제에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혁신과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권리 보호 기간이 만료된 지식재산권(한국의 경우 특허는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권리 보호 기간이 지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수준이 높은 기술로 인식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한 발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되는 사회적 경제는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고용 창출, 사회적 포용,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경제 모델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경제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Appadurai, 1998; Artz, 2010; Belfiore, 2018; Choi, 2022; Baek & Choi, 2024; Jang, 2024; Jang & Noh,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국에서 권리 보호가 만료된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과 접목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Acs et al., 2014; Acs et al., 2009; Audretsch et al., 2005; Aidis et al., 2012; Lichtenthaler, 2009; Lynskey, 2009; Martin and Mykytyn, 2009; Pacheco-de-Almeida et al., 2012). 선진국에서 권리 보호가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에서 활용하면, 개발도상국의 일반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권리 보호가 만료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구나 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격차, 기술 이전의 장벽, 그리고 사회적 경제 모델의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지식재산권 활용 전략의 부재 등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식재산권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Autio and Acs, 2010; Acs et al., 2013). 따라서 권리 보호가 만료된 선진국의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과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형 지식재산권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권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국과의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선진국에서 권리 보호 기간이 만료된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접목하여 사회적 경제 기반 형 지식재산권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유형과 ODA의 사업 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 유형을 개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방법을 선택한다. AHP는 전문가들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존하여 대안선택을 하게 하는 연구 방법이다. 지식재산권, 사회적 경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등의 용어가 말해 주듯이 이 분야는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적 판단을 활용하고자 한다.

## II. 현황 및 이론적 논의

### 1. 지식재산권, 사회적 경제 그리고 ODA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은 개인이나 기업이 창출한 창의적인 작품이나 발명품 등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이는 문학적, 예술적 작품, 발명품, 상표, 디자인, 비즈니스 비밀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지식재산권은 이러한 창의적인 작업물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긴 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는 권리보호기간이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https://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11>, <https://kipo.go.kr/ko/MainApp.do>).

특허청의 통계를 보면, 2022년의 경우 국내 출원 지식재산권 수는 556,436건이고 이 중 등록건수는 326,740건이다. 이 중에서, 출원 기준으로 상표권이 259,078건 (46.6%)으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특허로서 237,633건 (42.7%) 이고, 디자인이 56,641건 (10.2%), 그리고 실용신안권이 3,084건 (0.6%) 순이다. 등록 건수로 보더라도 비슷한 비중인데, 2022년 기준 총 등록건수는 326,740건으로서 이 중에서 특허는 136,180건 (41.4%), 상표는 135,333건 (41.4%), 디자인은 54,775건 (16.9%), 그리고 실용신안은 1,452건 (0.4%) 순이다.

한국의 경우, 특허가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이 등록되고 있는데 권리 보호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전인 2003년 이전에 등록이 된 특허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003년 당시의 한국의 1인당 GDP는 14,672 달러라는 사실이다. 단순히 말한다면, 어떤 나라에서 등록되는 특허의 수준은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2003년에 등록된 한국의 특허들은 한국의 당시 기술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 대부분은 아직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 이하의 수준에 있다. 즉, 2003년에 한국에서 등록되어 20년이 지난 2023년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허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지금도 유용한 기술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지식재산권이 개발도상국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들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회적 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국가와 시대별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공통적인 점을 도출한다면,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sumry.do?m\\_cd=E060](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sumry.do?m_cd=E060)).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점을 든다면, 국가가 일정한 형태로 기업 등을 지원해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일반 시장 경제에 던져지는 경우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든지,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들의 생산품을 공공조달 형태로 구입해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경제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2023년 12월 말 현재 사회적 경제에 포함되는 기업 유형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소셜벤처기업이다([https://www.socialenterprise.or.kr/download/soical\\_econ\\_leaflet\\_2022.pdf](https://www.socialenterprise.or.kr/download/soical_econ_leaflet_2022.pdf)).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을 말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마을기업이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말한다. 자활기업이란,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인 자활 근로를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을 말한다. 그리고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을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 경제 유형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각 유형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한국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제도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Bessler and Bittelmeyer, 2008; Anuar, 2012; Pisano and Teece, 2007; Roy, 2013). 이러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한국이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를 접목시켜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즉, 한국의 지식재산을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사용하게 하고, 이를 사회적 경제 방식이던지 아니면 일반 기업 방식이던지 간에 적절한 기업 형태를 유지하게 하여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한국의 지식재산을 비즈니스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한국 사람들이 개발도상국 현지에 가서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방식, 즉,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이 한국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델 개발에 초점을 준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부문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업, 그리고 기술과 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이다. 아울러 지원 활동도 인건비 지원, 공공조달을 통한 구매 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하다.

또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개발도상국이라고 할지라도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떤 분야가 적합할지 및 어떤 지원 활동이 필요한지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활동 수준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 현재 개발도상국은 소득 수준에 따라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최빈국은 1인당 소득이 1,005달러 미만인 국가들, Lower Middle Income 국가들은 1,006달러 보다 높고 3,955달러보다 낮은 국가들, 그리고 Upper Middle Income 국가들은 3,956달러 보다 높고 12,235달러보다 낮은 국가들이다. 즉, 소득 수준이 다름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인프라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Choi, Young-Chool, 2022).

## 2. 선행연구 검토

국내 연구 중에서 지식재산권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시킴으로써 ODA 사업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모델을 연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식재산권 그 자체, 또는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Kang, Myung-Soo, 2016; Choi, Sung-Soo, 2013; Kim, Wan-Jae and Jeong, Hwa-Young, 2007; Choi, Jong-Yeol, 2013; Lee, Hyung-Mo, Kim, Myoung-Suk and Kim, Eung-Gyu, 2012; Na, Sang-Gyun, Lee, Jun-Soo, 2007; Valentini, 2012; Walden, 2005; Willoughby, 2013; Suh and Hwang, 2010). 더 나아가 지식재산권을 사회적 경제와 연관시켜 수행한 연구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를 접목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ODA 사업으로 적용하고자 한 연구는 찾아보기 더욱 힘들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축적된 사회적 경제 지원 제도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와 연결 짓는다면 이러한 시도는 학술적,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출발한다고 하겠다.

### 3. 연구문제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연구문제 1)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개발도상국 유형에 적합한가?

(연구문제 2)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ODA 사업 유형이 적합한가?

(연구문제 3)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를 적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경우에 어떤 지원방법이 적합한가?

## III 조사 설계

###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AHP 방법을 선택한다.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각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를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Cho, Geun-Tae, Cho, Yong-Gon and Kang, Hyun-Soo, 2005). 한국의 지식재산권 중 권리 보호가 완료된 지식재산권을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과 접목하는 연구에 AHP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계층적 질문을 다음 <Fig.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Fig. 1> AHP Model To Be Used In This Study



Source: Constructed by the author

제일 상위의 계층은 본 AHP 분석의 목적인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과 사회적경제의 모델 구성이다. 2계층에는 개발도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분류하였다. OECD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유형을 소득별로 크게 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유형은 인당 GNI(Gross National Income)가 2020년 기준으로 1,045달러 이하 국가, 2유형은 1,046달러 보다 높고 4,095달러 보다 낮은 국가, 3유형은 4,096달러 보다 높고, 12,695달러보다 낮은 국가이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경제적 측면 뿐 만 아니라 각종 제도적 측면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별 개발도상국 유형을 2계층에 포함시켰다. 3계층은 ODA 사업의 유형이다. ODA 사업도 보건, 교육, 공공행정, 농업, 기술 환경, 에너지 등 크게 5유형으로 분류된다.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해 ODA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 유형에 따라 적합 정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지원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인건비 지원, 조달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이다. 사회적 경제에 의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인건비 지원이다. 조달지원은 사회적 경제에서 만들어진 생산품들을 공공기관들이 일정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마케팅 지원은 사회적 경제에 의하여 생산한 제품들의 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하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위의 그림에서 표기된 영문 약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Least는 최빈국, Lower Middle은 저중소득국, Upper Middle은 고중소득국을 의미한다. 한편, ODA 사업의 유형 분류 가운데 보건의 Health, 교육은 Education, 공공행정은 Public, 농업은 Agriculture, 기술 환경 및 에너지는 Technology로 표기하였다. 사회적 경제의 지원 분야 분류의 경우 인건비 지원은 Personnel, 공공조달 지원은 Procurement, 마케팅 지원은 Marketing, 컨설팅 지원은 Mentoring으로 표기되어 있다.

## 2. 분석절차

AHP 방법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된다는 점이 다른 일반 설문지 방법과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 사회적 경제, ODA 분야는 일반인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야이며, 대단히 전문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경우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은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연구 방법으로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AHP 방법이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 전문가 2명, 사회적 경제 전문가 2명, ODA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등 모두 6명에게 AHP 설문에 응하게 하여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2023년 10월 3일부터 10일간 이루어졌다.

AHP 분석에 적용한 소프트웨어는 'I MAKE IT' 프로그램이며, 이는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6명의 전문가들이 응답한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 점수를 이용하였으며, 민감도 분석도 수행하였다.

### 3. AHP 설문지 구성

AHP 설문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Satty(1996)의 9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두 비교 기준 간 동등함을 의미한다.

<Fig. 2> AHP Questionnaire (Example)

현재 평가는 프로젝트의 목표인 'IP and SE MODEL' 의 1차 평가기준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어느 기준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한지 / 선호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평가항목	크 히 많 이	대 단 히 많 이	아 주 많 이	매 우 많 이	많 이	상 당 히	약 간	조 금	동 등	조 금	약 간	상 당 히	많 이	매 우 많 이	아 주 많 이	대 단 히 많 이	크 히 많 이	평가항목
Leas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Lower middle
Lower middle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Upper middle
Least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Upper mid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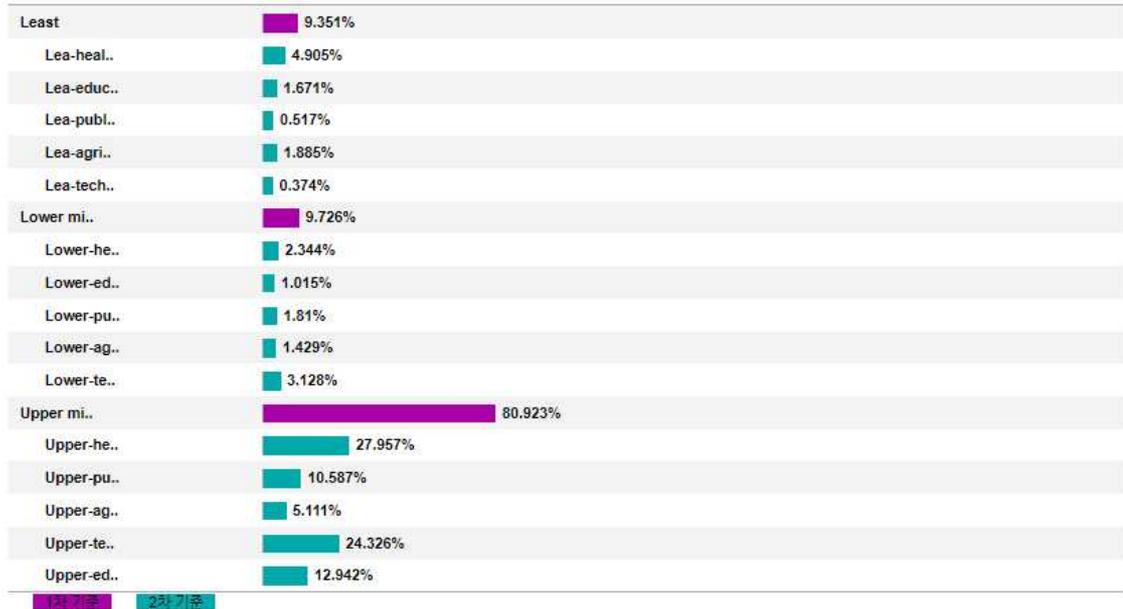
Source: Constructed by the author

## IV 분석결과

### 1. 개발도상국 유형별 가중치

개발도상국의 소득 유형별 가중치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 별로 3개로 나누어 볼 때,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는 고중소득국가가 가장 적합하며 (80.923%), 그 다음은 저중소득국 (9.726%)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빈국이 가장 낮은 상태 (9.351%)를 나타낸다. 즉, 지식재산권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ODA 원조 지원은 이 사업의 성격상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국가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 Weights by Developing Countries Type



Source: Analyzed by the author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제공 방식에서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지원 방식의 적합성 우선순위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높게 나타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술 이전 및 적용 능력의 중요성이다. 소득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기술 인프라와 교육 수준이 더 발달해 있으므로, 지식재산을 통한 기술 이전이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모델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높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적,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기술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기존의 사회적 경제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고중소득국은 사회적 경제 구조가 이미 어느 정도 발달해 있어, 지식재산과의 접목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조직들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들 조직을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용이함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 접근성 및 경제 활동 측면이다. 고중소득국은 일반적으로 더 넓은 내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 접근하기도 더 용이하다. 이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 활동은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과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넷째, 정책 및 법적 지원 측면이다. 고중소득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및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더 잘 갖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발명이나 창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고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면, 최빈국이나 저중소득국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기술 인프라의 부족, 낮은 교육 수준, 덜 발달한 사회적 경제 구조, 제한적인 시장 접근성, 그리고 미흡한 정책 및 법적 지원은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원조 제공 방식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가 이러한 접목을 통한 지원 방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개발도상국 내의 사업 유형별 가중치

개발도상국 내에서 사업 유형별 중요도 가중치를 보면, 최빈국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905%), 그 다음은 농업 분야 (1.885%), 교육 분야 (1.671%), 공공행정 분야 (0.517%), 기술 환경 및 에너지 분야 (0.374%)로 드러났다.

최빈국에서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방식이 보건 분야와 농업 분야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반면, 교육 분야, 공공행정 분야 및 기술 분야에서는 적합도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첫째, 보건 분야의 우선순위이다. 최빈국에서는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의 부족이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해 특허 받은 의약품, 의료 기술, 보건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모델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농업 분야의 중요성이다. 최빈국의 경제는 대체로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농업 기술, 지속 가능한 농법, 향상된 종자 등을 농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전파한다면, 지역 사회의 농업 발전과 식량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과 공공행정 및 기술 분야의 도전 문제이다. 최빈국에서 교육, 공공행정, 기술 분야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분야들은 단기간 내에 명확한 성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교육 분야의 경우, 기반이 되는 교육 인프라의 부족, 교육의 질 문제, 교사 부족 등이 있으며, 공공행정 분야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조 부재, 투명성, 부패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기술 분야는 고급 기술력과 인프라,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요구되며, 이는 최빈국이 단기간 내에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적용의 실용성과 우선순위 설정과의 관계 문제이다. 보건과 농업 분야는 최빈

국에서 직면한 기본적인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의 개선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적인 생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교육, 공공행정, 기술 분야의 발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당장의 생존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어렵다. 따라서 최빈국의 현실적인 우선순위와 당면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보건과 농업 분야가 더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ODA 지원 방식에서 분야별 적합도의 차이는 최빈국의 현재 필요와 우선순위, 그리고 각 분야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 해결의 실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저중소득 국가의 경우에는 기술 환경 및 에너지 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128%), 그 다음은 보건 분야 (2.344%), 공공행정 분야 (1.81%), 농업 분야 (1.429%), 교육 분야 (1.015%)로 나타나고 있다.

최빈국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저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첫째, 경제 발전 단계에서 기술 혁신과 적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분야의 발전이 생산성 향상, 산업 다각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게 기술 분야의 지원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된다.

둘째, 보건 서비스의 필수성 측면이다. 보건 분야는 모든 국가의 기본적인 필요 사항이다. 저중소득국가에서는 보건 분야의 강화가 질병 예방, 건강한 노동력 확보,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는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보건 분야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셋째, 공공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다. 공공행정 분야는 효율적인 정부 운영과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반이 된다. 저중소득국가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며, 이는 투자 유치, 부패 감소, 그리고 사회적 신뢰 구축을 통한 전반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이다. 저중소득국가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며, 생계 수단이다.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지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 생산성 향상, 그리고 시장 접근성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기술 분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는 것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섯째, 교육의 장기적 투자 가치 측면이다. 교육은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중소득국가에서 교육 분야의 발전은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단기적인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덜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와 기술 혁신의 필요성에 밀려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가 (27.95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기술 환경 및 에너지 분야 (24.326%), 교육 분야 (12.942%), 공공행정 분야 (10.587%), 농업 분야 (5.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난 데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보건 분야의 중요성이다. 고중소득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분야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이러한 국가들이 이미 기본적인 생계 필요를 넘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중소득국가는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질병 예방 및 관리, 그리고 공중 보건 개선을 통해 인구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둘째, 기술 분야의 발전을 들 수 있다. 고중소득국가에서 기술 분야는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혁신을 통해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이동하려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기술 분야의 발전은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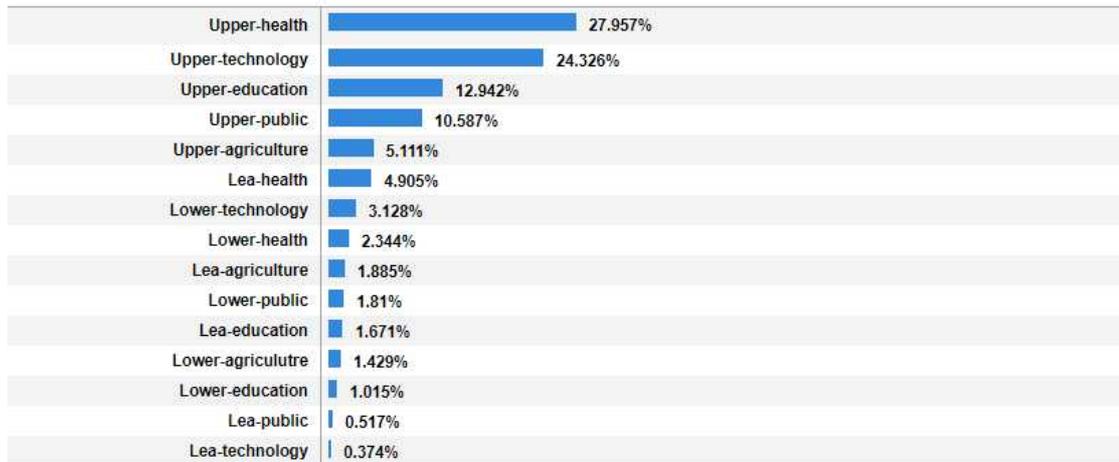
셋째, 교육 분야의 역할이다. 고중소득국가에서 교육은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며, 이는 기술 분야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교육 분야의 강화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공공행정 분야의 개선 필요성 측면이다. 고중소득국가에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공행정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좋은 거버넌스, 법의 지배, 그리고 공정한 정책 집행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다섯째, 농업 분야의 상대적 우선순위 문제이다. 고중소득국가에서 농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이는 농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이들 국가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농업보다는 기술, 서비스, 고부가가치 산업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 분야의 기술적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이미 일정 수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발전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들의 ODA 사업 유형별 지식재산의 활용 적합도를 순서대로 제시해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4> Priorities for Suitability of ODA Projects by Type of Develop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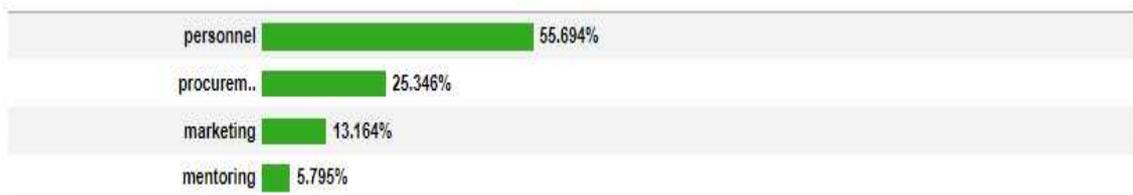


Source: Analyzed by the author

### 3.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지원 방식의 우선순위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 인건비 지원방안 (55.694%), 공공조달 지원 (25.346%), 판로개척 등의 마케팅 지원 (13.164%),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서비스 (5.795%)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Fig. 5> Priorities of support methods



Source: Analyzed by the author

위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인건비 지원의 중요성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이들 기업이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크게 직면하는 재정적 부담 중 하나를 해소해 줄 수 있다.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인력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공공조달을 통한 제품 구매의 중요성이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조달 방식으로 구매하는 것은 이들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기업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이다. 공공조달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이다.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은 이들 기업이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는 특히 소비자 인식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에서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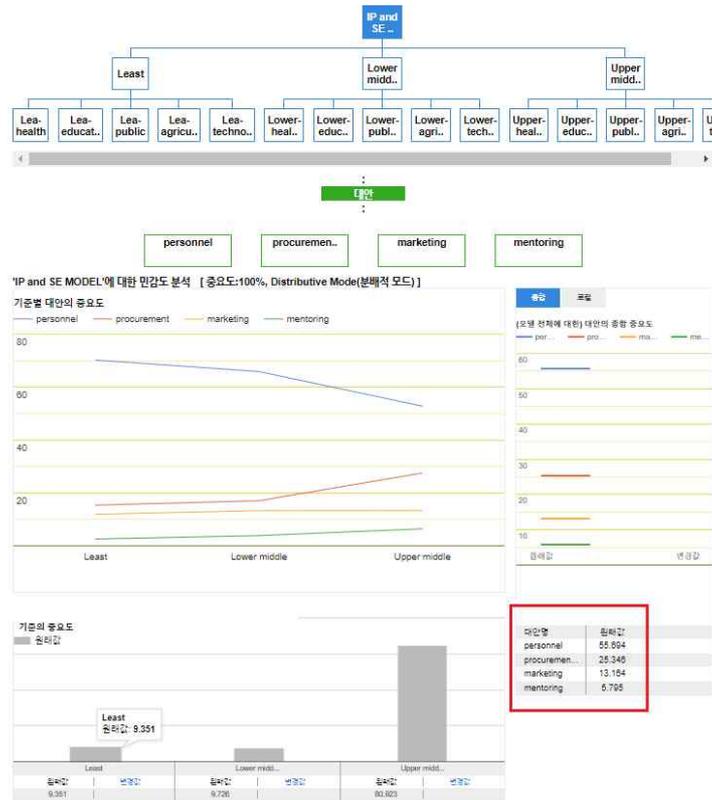
넷째, 멘토링 서비스 지원 측면이다. 멘토링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인 재정적 안정성이나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멘토링 서비스는 사회적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만,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원이나 시장 접근성 확보와 같은 더 긴급한 필요 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 4. 민감도 분석

### 1)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

AHP는 복잡한 의사 결정 문제를 계층화하여, 요소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쌍대비교 방식으로 평가하는 방법임을 이미 설명한 바 있다. 이 방법을 통해 결정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민감도 분석은 이러한 우선순위가 입력 변수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특히, 입력 데이터나 가중치에 변화가 생겼을 때 민감도 분석을 통해 다른 대안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유연한 의사결정 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아래 그림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전의 개발도상국별 가중치이다.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ODA 사업 우선순위 면에서 최빈국은 9.351, 저중소득국은 9.726, 그리고 고중소득국은 80.923으로 나타났다.

<Fig. 6> Weight Before Sensitivit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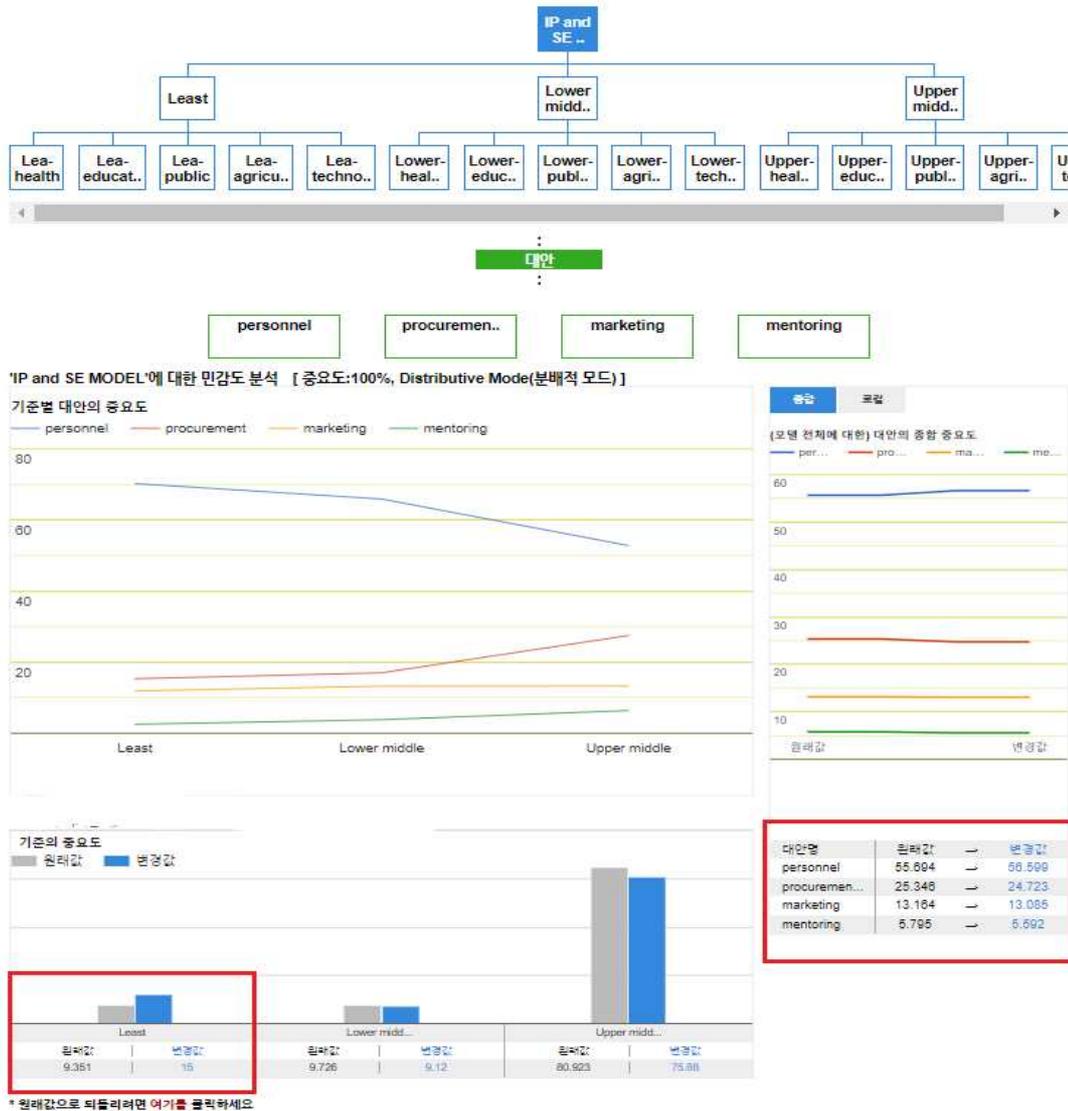


Source: Performed by the author

## 2) 민감도 분석1: 시나리오1

아래 그림은 시나리오 1로서 최빈국의 값을 9.351에서 50% 이상 높인 15로 한 경우 어느 정도 결괏값이 변동되는지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건비 지원 부분은 55.694에서 56.599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공공조달도 25.346에서 24.723으로 근소한 변화만 보였다. 마케팅 지원과 멘토링 서비스 지원의 변화값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특정 변수의 가정이나 평가가 변경되더라도 최종 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Sensitivity Analysi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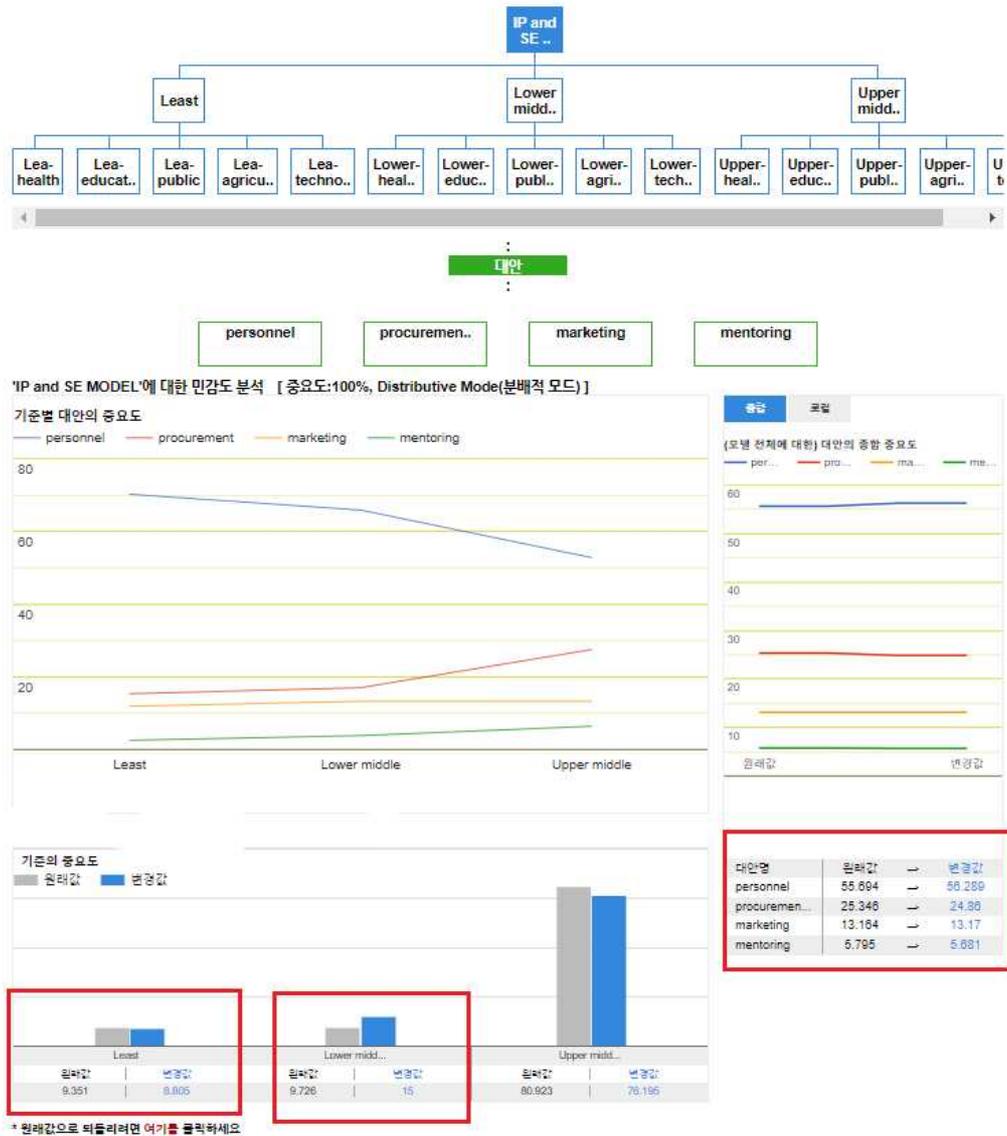


Source: Performed by the author

### 3) 민감도 분석 2: 시나리오 2

이번에는 저중소득국의 비중을 민감도 분석 전의 9.726에서 50% 이상 증가시킨 15로 하여 다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시나리오 2의 민감도 분석결과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Fig. 8> Sensitivity Analysis 2



Source: Performed by the author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중소득국의 가중치를 50% 이상 변동시킨 경우에도 대안들의 변동값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인건비 지원의 가중치가 원래값인 55.694에서 56.259로 약간 변동되었으며 공공조달 지원도 25.346에서 24.86으로 근소한 변화만 보여주고 있다. 마케팅 지원과 멘토링 지원의 경우에도 미세한 변화만 보여주고 있다.

## 5. 분석결과 종합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방식을 접목시켜서 개발도상국에 ODA 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경우의 우선적인 지원방식을 AHP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개발도상국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중소득국가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ODA 사업의 유형을 볼 때, 최빈국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저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기술 분야가 높았으며, 고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보건 분야가 다시 제일 높은 가중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원 방식의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으며, 그 다음은 공공부문의 구매와 같은 공공조달지원, 마케팅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서비스 지원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대안들의 변화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특정 변수들의 변화가 대안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지식재산과 사회적 경제의 접목을 통한 개도국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특히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위에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유형별 지원 전략의 차별화이다. 고중소득국에 대한 지원이 저중소득국 및 최빈국보다 적합하다는 결과는 지원 전략을 소득 수준에 맞춰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고중소득국은 이미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반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사회적 경제 방식을 통한 추가적인 발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분야별 지원의 중요성이다. 최빈국은 보건 분야의 우선순위가 높은 반면, 저중소득국은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지원을 받는 국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지원 분야를 선별적으로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고중소득국에서는 보건과 기술 분야가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평가되어, 이들 국가에는 두 분야 모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지원 분야의 우선순위 설정이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공공조달 지원이 멘토링 서비스 지원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결과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있어 재정적 지원이 기술적 지원이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나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운영 자금과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단순한 재

정 지원을 넘어서 각 국가와 지역의 특성, 경제적 상황, 그리고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지원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자립성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cs, Z. J., Audretsch, D. B. and Lehmann, E. E. (2013),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1(4), 757–774.
- Acs, Z. J., Autio, E. and Szerb, L. (2014), "National Systems of Entrepreneurship: Measurement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Research Policy*, 43(3), 476–494.
- Acs, Z. J., Braunerhjelm, P., Audretsch, D. B. and Carlsson, B. (2009),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32(1), 15–30.
- Aidis, R., Estrin, S. and Mickiewicz, T. M. (2012), "Size matters: entrepreneurial entry and govern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39(1), 119–139.
- Anuar, H. et al. (2012), "The role of internal R&D in operational performance as moderat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Malaysian manufacturing perspective", *Journal of Innovation and Business Best Practices*, 2012 (Article ID 983677), 1–15.
- Appadurai, A. ed. (1988), "The social life of things: Commodities in cultur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tz, K. W. et al.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R&D, patents, and product innovation on firm performan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7(5), 725–740.
- Audretsch, D. B., Keilbach, M. and Lehmann, E. (2005), "The Knowledge Spillover Theory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ical Diffusion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 Transfer",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69–91.
- Autio, E. and Acs, Z. (2010),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growth aspirations", *Strategic Entrepreneurship Journal*, 4(3), 234–251.
- Baek, Eun & Choi, Yoo-mi (202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aning of Shared Value of Social Enterprise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13(4), 1–29.
- Belfiore, E. (2018), "Whose cultural value? Representation, power and creative indus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DOI:10.1080/10286632.2018.1495713.
- Bessler, W. and Bittelmeyer, C. (2008), "Patents and the performance of technology firms: Evidence from initial public offerings in Germany",

- Financial Markets and Portfolio Management*, 22(4), 323–356.
- Cho, Geun-Tae., Cho Yong-Gon and Kang Hyun-Soo (2005),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Seoul, Dong Hyeon.
- Choi, Jong-Yeol. (2013), “Concreteness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of technology based Start-up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8(1), 29–36.
- Choi, Sung-Soo. (2013), “A Review of Korean Cases Related to the Applicable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Korea Private International Law Journal*, 19(1), 283–330.
- Choi, Young-Chool. (2022),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Utilizing Social Economy and Intellectual Properties*, Seoul, Yunseongsa.
- Jang, Ji-Hyun. (2024), “A Study of the Spread of Affirmative Action Programme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13(4), 159–185.
- Jang, Ji-Hyun & Noh Young-Sook (2019), “Dilemmas of Social Enterprised based in Chungbuk Province”,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8(1), 25–45.
- Kang, Myung-Soo. (2016), “Judici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on the work – for – hire(Subject Decision of this Article : Supreme Court Decision2012Da4763 Decided Jan. 15)”,65(9), 716–741.
- Kim, Wan-Jae and Jeong Hwa-Young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Fir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2(3), 33–60.
- Lee, Hyung-Mo, Kim Myoung-Suk and Kim Eung-Gyu (2012), “A study of the Patent-related Activities affecting the Early Stage Compan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3–162.
- Lichtenthaler, U. (2009), “The role of corporate technology strategy and patent portfolios in low-medium- and high-technology firms”, *Research Policy*, 38(3), 559–569.
- Lynskey, M. J. (2009), “Aligning strategy and intellectual property to maximise business value: A proposal for new technology-based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3(4), 301–325.
- Martin, N. L. and Mykytyn, P. P. (2009), “Evaluat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business method patent owners”,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26(3), 285–301.
- Na Sang-Gyun and Lee Jun-Soo (2007), “Survival Analysis of New Birth Enterprise : Focused on Technological Innovation Manufacture”, *Korean*

-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3), 1325–1340.
- Pacheco-de-Almeida, G. and Zemsky, P. B. (2012), “Some like it free: Innovators' Strategic use of Disclosure to slow down Competitio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7), 773–793.
- Pisano, G. P. and Teece, D. J. (2007), “How to capture value from innovation: Shap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industry architectur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0(1), 278–296.
- Roy, D. (2013),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competitive advan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6(1/2), 36–61.
- Satty, T.L. (1996), *The Analytic Network Process*, Boston, RWS Publications.
- Suh, D. and Hwang, J (2010),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performance of software firms in South Korea”, *Technovation*, 30(5/6), 376–385.
- Valentini, G. (2012), “Measuring the effect of M&A on patenting quantity and qualit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33(3), 336–346.
- Walden, E. A. (200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annibalization in information technology outsourcing contracts”, *MIS Quarterly*, 29(4), 699–720.
- Willoughby, K. W. (2013),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an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Management*, 10(6).